

지뢰처럼 위험한 가로등·신호등만 전국에 2만4000여개

전기안전공 부적합 판정에도 지자체 미개보수 상태로 방치
단순 비닐테이프로 절연...실리콘 방수절연캡 등 도입해야

전국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2만4000여개 이상이 부적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들이 감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업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가로시설물에 단순한 비닐절연테이프 방식 대신 실리콘 방수절연캡과 같은 효과적인 방수 제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갑)이 9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2만6675개 중 개보수를 완료한 시설물은 2296개다. 나머지 2만4379개(91.4%)는 미개보수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개보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특별자치도가 부적합 설비 5674개 중 미개보수 설비 5600개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 4704개, 전남 3086개, 경남 2384개, 부산 1908개, 경북 1812개, 충남 1583개 순이었다.

이들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맡고 있다.

부적합 설비는 지자체에게 개선방법 등

을 안내해 개보수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도 반영, 평가지표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기안전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에 소극적이다. 전기안전공사 역시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만 할 뿐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시설물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비닐테이프로 활용한 절연방식 대신 실리콘 방수절연캡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225조에서는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예컨대전선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러 시공방식 가운데 비닐절연테이프를 선호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비닐절연테이프를 사용할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접착성



경북 영덕군은 이번에 내습한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평균 311.5mm 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주택 1300여채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사진은 이번 태풍으로 침수된 영덕읍 보경마트 앞 도로. 도로의 가로시설물도 침수돼 아찔함을 주고 있다.

능이 떨어지고, 점검 작업도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방수성능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제품들이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이다.

반면 요즘 나오는 실리콘 방수절연캡은 습기, 침수 등에 취약한 옥외 케이블 접속방식의 특징을 고려, 절연캡 내에 실리콘 젤을 삽입해 IP67 등급을 획득한 완전방수 제품이다. 격동회로 시 타 선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분기회로·교량·신호등·조명탑·경관조명 등 설치 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적합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케이블 접속방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KC인증이나 KS인증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값

이 저렴한 테이핑 방식을 선호하는데, 테이핑은 작업방식, 점검방법 등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지자체나 기관은 방수형 접속함이나 실리콘 젤타입의 수밀식 방법을 적용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런 지자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전기설비는 일반 설비와 달리 태풍이나 폭우 등에 민감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핑계삼아 부적합 전기설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일 기자 yunji@

부적합 전기설비 중 45% 방치

공공시설물 관리 근본적 안전대책 필요

6만개 이상의 전기설비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5% 정도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 등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에 절반 가까이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가운데 6만439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9002개가 방치된 상태다. 이는 2015년 전체 6만3470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9159개가 방치됐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전기설비 방치율이 높은 곳을 꼽았을 때, 제주 91.7%, 대전 74.3%, 전남 67.4%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대전 대덕구·동구가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전기설비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대전 서구는 개선되지 않은 전기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은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파손 여전

김영진 의원

"화재 대형 참사 막으려면
소방시설물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임대아파트 내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건수가 총 1027건, 피해금액은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에 소화기나 관창 등 소방시설물 도난·파손이 매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의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파손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2014년 대비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으나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670만2000원으로 두 배가량 늘

어났다.

게다가 최근 임대아파트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시설물 도난·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물론 입주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71건으로 2014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중상·경상의 인적피해는 64건으로 2014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물적 피해도 3억3720만 원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화재는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물이 도난·파손돼 있으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화재 사각지대가 없는지 자주 점검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화재로부터 입주민 안전을 최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LH 건설현장서 해마다 259명 사상

올 상반기까지 누적 총 1397명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총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산재처리일 기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모두 1397명 수준이다.

지역별로 들여다봤을 때 ▲경기 635명 ▲세종 84명 ▲인천 80명 ▲서울 79명 ▲경남 57명 ▲강원·경북 56명 ▲충남 55명 ▲대구 53명 ▲부산 49명 ▲전남 40명 ▲전북 37명 ▲대전 34명 ▲충북 31명 ▲광주 24

명 ▲울산 16명 ▲제주 11명 순이다.

LH 건설 현장에서만 매년 평균 248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원인별로는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으로 인한 사고가 258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부품·부속물 및 재료로 인한 사고가 79명, 설비 및 기계로 인한 사고가 73명으

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추락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404명(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넘어짐 사고는 265명(19%), 맞음 사고는 145명(10%), 절단 및 베임·찢임 사고는 100명(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연도별 재해자 현황

구분	LH 재해자수 (명)			사망률 (%)	사망인원률 (%)	비고
	사망자수 (A)	부상자수 (B)	재해자수 (A+B)			
2013	17	282	299	0.42	2.37	
2014	7	268	275	0.38	0.97	
2015	13	258	271	0.35	1.70	
2016	8	251	259	0.46	1.41	
2017	8	180	188	0.38	1.60	
2018	5	100	105	-	-	5월말 기준
5년평균	11	248	259	0.40	1.61	'13~'17

「一生一業」

오직 장인정신으로
변압기만 만듭니다



www.sjtr.co.kr

SUNGJIN TRANSFORMER

진공주형 몰드변압기
CAST-RESIN TRANSFORMER

빠른납기!!
고효율!!
저소음!!



주요생산품목

- 진공주형 몰드변압기
- 고효율(표준소비효율) 몰드변압기
- 고효율(표준소비효율) 유입변압기
- 전력용 유입변압기
- 배전용 유입변압기
- 자상설치형(PAD) 변압기
- 건식 변압기
- 특수 변압기 (집류기, 로울)

성진종합전기(주)
Sungjin General Electric Co., Ltd.

본사·공장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1424번길 17-26
(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암리 77-11번지)
TEL : (031)355-9977 (대)
FAX : (031)356-1452
A/S : 010-2232-9977